1인가구 맞춤
행복정책 시리즈

you're NOT alone 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2023년 10월 25일 | **작성인** 고승연 연구위원 | **발행인** 정태호 원장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❸

중장년 1인가구,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꿈꾸다

I 요 약 I

■ 중장년 1인가구의 인적·사회적·경제적 특징

○ 가족해체 상황 36.1%, 남성 비중 61.7%, 전체 중장년 중 1인가구는 비수도권에 더 많아
○ 사회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남성'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외에는 40대가 50대보다 사회 자본 더 취약
○ 非1인가구와 좁힐 수 없는 경제적 격차, '여성' 1인가구의 41.7%는 소득1분위
○ 50대부터 크게 악화되는 생활, '가족해체'와 '취업'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

■ 기존 중장년 1인가구 정책의 한계

○ 1인가구 정책 대부분이 청년·노인에 집중, 중장년 1인가구는 실질적으로 정책적 관심 밖
○ 중장년기엔 청년과 노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공존, 정부의 관심은 위기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 뿐
○ 대부분 소규모로 대동소이한 중장년 1인가구 사업, 정책적 차별성이나 정책 목표(outcome) 모호

■ 중장년 1인가구 정책 방향

○ 사회적 관계망·소득·일자리 질의 급격한 악화, 노년기 진입 전 경제·사회적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강화
○ 자원 양호, 생활여건 개선 가능, 사후 문제해결식 소극적 대처→'자립에 초점을 둔 적극적 지원'으로 전환
○ '단기적(1년 이내)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가능한 경우'를 정책 타겟으로 설정

■ 중장년 1인가구 정책

○ **(1인가구 기본 안전망 확대)** 주거·돌봄의 '1인가구 기본 안전망' 구축, 중장년 1인가구는 '예방적' 지원 지향
○ **(자립 역량의 측정)**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일상적·경제적·사회적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
○ **(지역별·대상별 맞춤 정책 설계)** 개인 역량과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 다양성 제고, 지역별 1인가구 특성에 기반한 대상과 목표 명확화
○ **(호혜성 훈련에 기반한 사회 자본 확충)** 사회적 관계망·호혜성·신뢰를 포괄하는 '사회 자본' 지향, 공익활동과 자조모임 등 적극 활용
○ **(멘토링+일경험 지원)** 취업 지원은 직무 경험뿐만 아니라 조직 적응 및 소통 훈련 등의 멘토링과 병행
○ **(중장년 1인가구 NEET 지원체계 구축)** 사회경제적으로 비활동 상태의 중장년 1인가구의 정기적 파악 및 관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문제 제기

○ **중장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1/10, 중장년 가구의 1/4 차지, 중장년 가구주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장년 1인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40대 가구주가 19.3%(421만 가구), 50대 가구주는 22.2%(484만 가구)로 중장년이 전체 가구의 41.5% 차지
- 전체 가구의 9.7%, 중장년 가주의 23.4%가 중장년 1인가구(212만 가구)
- 전체 가구 중 중장년 가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장년 1인가구는 절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대체로 노년기에 증가 속도가 빠른 1인가구 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 1인가구는 국가의 주요한 인구 정책 대상으로 인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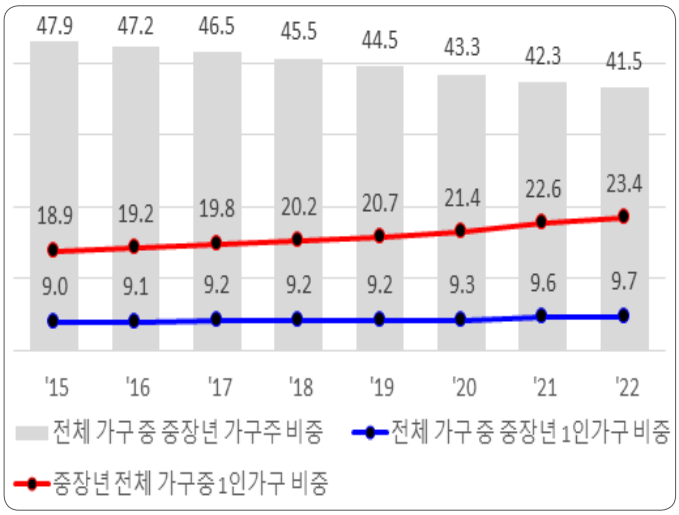
○ **중장년 1인가구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 위험이 높은 편,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은 타 연령층에 비해 부족**

- '21년 고독사 중 4050세대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5.2%, 1인가구에서의 고독사위험군 중 40대 25.8%(24.5만 명), 50대 33.9%(37.3만 명)로 추정[1)]
- 하지만 정부 정책들 대부분이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중심, 1인가구 정책도 청년과 노인 위주
- 중장년은 청년보다 미래 변화가능성은 낮지만 노년층에 비해 자원 양호, 이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한 정책은 원만한 노후생활 보장과 더불어 1인가구의 고령화 문제 완화에도 효과적일 것

○ **본 고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제안을 목적으로, 세대별 및 非1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중장년(4050대) 1인가구의 인구통계적·사회적·경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2)]**

중장년 가구 현황

구 분	가구 수 (가구)	전체가구 중 비중(%)
전체 가구	21,773,507	100.0
중장년 가구주	9,045,419	41.5
1인 가구	2,115,082	9.7(23.4)
40대	977,577	4.5(23.2)
50대	1,137,505	5.2(23.5)
非1인 가구	6,930,337	31.8



주: ( )안은 각 연령대 총 가구 중 비중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자료로 산출

1) 관계부처합동. (2023. 5. 17.).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2) 현황 분석을 위해「사회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가족실태조사」등을 활용함

2. 중장년 1인가구의 인적 자본 특징

■ 가족해체 상황 36.1%, 남성 비중 61.7%, 중장년 중 1인가구는 비수도권에 더 많아

○ 중장년 1인가구 중 36.1%는 '가족해체' 상황으로 非1인가구(10.7%) 및 청년층(2.9%)과 큰 차이,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비자발적으로 사회에서 분리·소외,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

- 사회적으로 정의된 '정상가족' 밖에 있는 1인가구, 그 중에 가족해체로 인한 1인가구는 개인의 삶 전체가 '비정상'으로 인식
- 40대 19.1%에서 50대는 1인가구의 절반인 49.2%가 가족해체 상황,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커

○ 중장년 1인가구 중 '남성' 가구주 비중 61.7%로 타 세대에 비해 높고, 3명 중 1명 이상은 대졸 이상으로 노년 1인가구와 뚜렷한 차이

- 남성 가구주 비중은 40대 64.6%, 50대 59.5%, 노년 1인가구는 남녀 비중이 역전
- 중장년 1인가구주 중 대졸 이상 37.9%, 노년층은 9.1%로 큰 차이

○ 서울·경기도에 43.3% 거주, 중장년 중 1인가구의 비중은 비수도권의 도 지역에서 높은 편

- 중장년 가구 중 1인가구 비중과 남성 가구주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높아
- 중장년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강원(27.1%), 제주(26.9%), 경북(26.6%) 등이 높고, 중장년 1인가구 중 남성 비중은 충남(64.9%), 전남(64.5%), 울산(64.1%) 등이 높아 지역별 특성 차이

가족해체 여부

(단위: %)

구 분		미혼	有 배우자	가족해체 사별	이혼	별거	소계
1인 가구	40대	64.3	16.6	1.7	16.4	0.9	19.1
	50대	25.2	25.6	5.4	37.1	6.7	49.2
	청년	95.1	2.0	0.2	2.4	0.4	2.9
	중장년	42.2	21.7	3.8	28.1	4.2	36.1
	노년	7.0	9.7	3.4	20.0	59.9	83.3
非1인 가구	40대	5.2	86.0	0.5	7.0	1.2	8.8
	50대	3.2	84.4	1.1	8.4	2.9	12.4
	청년	17.0	79.7	0.2	2.9	0.3	3.3
	중장년	4.2	85.1	0.8	7.7	2.1	10.7
	노년	0.6	89.4	0.6	3.2	6.2	10.0

주: 청년 20~30대, 중장년 40~50대 노년 60세 이상
자료: 「사회조사」('22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1인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징

(단위: %)

구 분		40대	50대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주 성별	남	64.4	59.5	59.4	61.7	34.5
	여	35.6	40.5	40.6	38.3	65.5
학력	고졸이하	51.3	70.4	38.6	62.1	90.9
	대졸이상	48.7	29.6	61.4	37.9	9.1
거주지	서울	21.2	14.6	28.6	17.5	16.3
	경기	26.1	25.6	21.1	25.8	18.8
	6대광역시	24.3	24.7	24.3	24.5	24.7
	충청도	8.4	8.7	8.0	8.6	9.5
	경상도	6.7	7.9	5.7	7.4	9.7
	전라도	9.5	12.9	8.9	11.4	15.5
	제주/강원	2.8	3.8	2.5	3.4	4.2

주: 좌동
자료: 좌동

지역별 중장년 1인가구 특징

(단위: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장년 가구 中 1인가구	24.1	23.6	22.6	21.9	23.9	23.9	21.9	19.2	20.9	27.1	26.1	26.0	25.3	26.1	26.6	24.2	26.9
중장년 1인가구 中 남성가구주	56.5	57.4	57.1	62.1	60.6	58.7	64.1	56.6	62.2	60.0	61.5	64.9	61.8	64.5	61.7	62.2	58.1

주: 중장년 가구 중 1인가구 비중- 전국 23.4%, 중장년 1인가구 중 남성가구주 - 전국 61.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2년)

3.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 자본 특징

■ 사회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남성'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외에는 40대가 50대 보다 사회 자본 더 취약

○ 사회 자본[3] 요소 중 '네트워킹'이 가장 취약, 청년층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 급격히 축소

- 중장년 1인가구부터 '자금차입' 대상이 있는 경우 급격히 감소, 경제적 어려움과 직결
  - 자금차입 대상 '있다'(1인가구 대상): 청년 64.0%, 중장년 41.6%, 노년 28.2%
- 상대적으로 신뢰와 준법수준은 청년세대간 차이가 적어
- 사회 자본 전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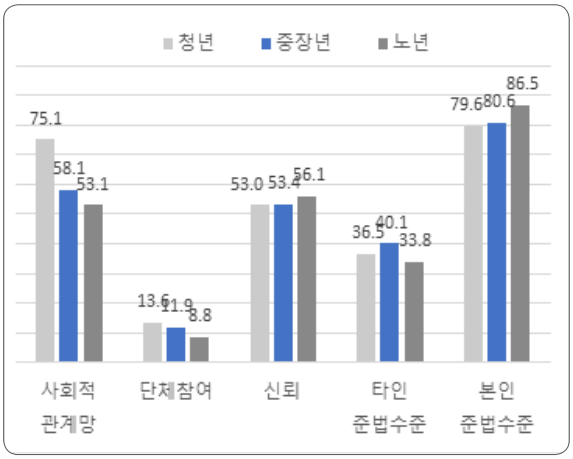
○ 50대는 40대 1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크게 좁아져(8.1%p), 반면 사회 자본의 다른 영역은 50대가 40대보다 높아(사회에 대한 신뢰 6.7%p)

○ 非1인가구에 비해 사회 자본 취약, 그 중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가 가장 커, 여성 1인가구주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사회적 관계망 중 非1인가구와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가사도움' 대상 유무(11%p)이며, '자금차입' 대상 유무도 10.7%p의 차이
- 남성 1인가구주는 非1인가구의 남성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있는 경우가 13.1%p나 적어 심각
- 여성 1인가구주는 非1인가구의 여성에 비해 '사회 신뢰', '사회적 관계망' 차이가 큰 편

중장년의 사회 자본 : 1인가구 vs. 非1인가구

(단위: %)



주: (신뢰도)4점 척도 중 '약간 신뢰+매우 신뢰'의 합, (타인/본인 준법수준) 5점 척도 중 '비교적 지킨다+아주 잘 지킨다)의 합, (사회적 관계망) 가사도움, 대화상대, 자금차입, 교육친척 유무에 대해 '있다'는 응답 평균, (단체참여)친목사교, 종교, 취미스포츠여가, 시민사회단체 '참여한다'의 응답 평균

자료: 「사회조사」('21, '22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중장년의 사회 자본 : 1인가구 vs. 非1인가구

(단위: %)

구 분		사회적 네트워킹		시민의식		사회 신뢰
		사회적 관계망	단체 참여	타인의 준법 인식	본인의 준법 인식	
1인 가구	남	55.6	12.5	58.7	77.4	54.5
	여	62.0	11.1	57.4	85.8	51.8
	40대	62.9	11.8	57.5	79.4	49.5
	50대	54.8	12.0	58.7	81.6	56.2
	소계	58.1	11.9	58.2	80.6	53.4
非1인 가구	남	68.7	16.0	58.0	81.5	59.4
	여	66.1	12.1	56.3	85.7	56.3
	소계	68.3	15.3	57.7	82.3	58.9

주: 좌동

자료: 좌동

3) 사회 자본은 연구자에 따라 유형과 범위 다양, 본 고는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시민의식으로 분석을 수행함

4. 중장년 1인가구의 경제적 특징

■ 非1인가구와 좁힐 수 없는 경제적 격차, 여성 1인가구의 41.7%는 소득1분위

○ 非1인가구와의 경제적 격차 심각, 40대와 50대간 소득 수준과 일자리 질 차이도 커

- 소득1분위 비중이 非1인가구의 10배, 무직자 비중도 非1인가구의 3배, 중장년 1인가구의 상대적 경제적 무력감과 절망감 커
- 40대와 50대간에도 경제 자본 차이 커, 소득1분위 비중이 50대 14.5%p 증가, 이전 소득 의존도는 증가 (경상소득: 40대 3,859만원, 50대 2,933만원/ 이전소득: 40대 218만원, 50대 361만원)
- 상용근로자 비중이 50대 36.4%p 감소, 반대로 무직은 31.7%p 급증, 중장년 내에도 50대에 경제적 상황 크게 악화 (상용근로자: 40대 52.9%, 50대 16.5% ↔ 무직 등: 40대 12.0%, 50대 43.7%)

○ 非1인가구과 비교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취약, 절대적 상황은 여성 1인가구주가 더 심각

- 남성 1인가구의 소득1,2분위 비중이 非1인가구보다 무려 53%p가 많아 상대적 격차 심각
- 여성 1인가구의 경우는 38.8%p로 격차가 다소 완화되지만, 남성 1인가구주보다 소득1,2분위 비중이 12.9%p 더 많아 78.6%를 차지

○ 노년층의 소득1분위 비중은 중장년의 2배, 중장년기 예방적 안전망 절대적으로 필요

- 노년층 소득1분위 비중(76.0%)은 중장년 1인가구의 38.5%의 2배, 평균 경상소득은 절반으로 감소, 연령 증가에 따라 경제 수준의 급격한 악화 예상
- 연령 증가나 소득 감소와 상관없이 여전히 부담이 큰 주거비와 의료비
  -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40대) 주거비 49.4%→식비 31.5%→교육비 4.8%, (50대) 주거비 40.5%→식비 30.1%→의료비 13.6% (자료: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년))

중장년의 사회 자본 : 1인가구 vs. 非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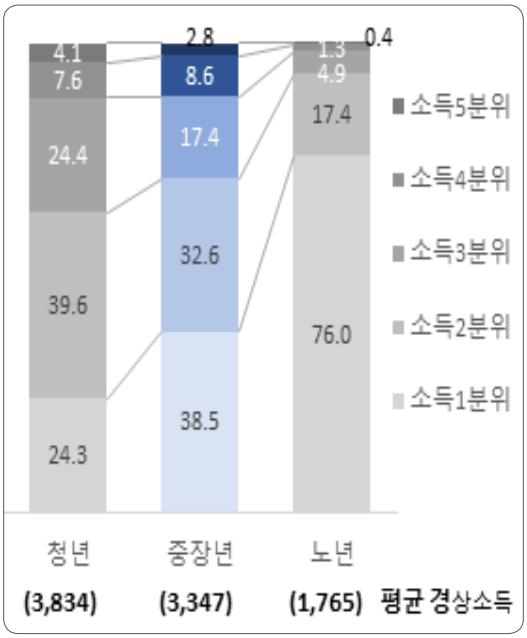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 분		1인가구			非1인가구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2.2	42.4	42.3	64.6	48.8	62.2
	임시/일용근로자	21.3	16.7	19.4	7.6	13.8	8.5
	자영업자	20.1	22.1	20.9	24.1	23.0	23.9
	무직 등	16.4	18.8	17.4	3.7	14.4	5.3
입주 형태	자기집	26.5	37.7	31.2	69.3	50.8	66.5
	전세	15.3	21.3	17.8	13.4	17.2	13.9
	보증금있는 월세	47.5	35.2	42.3	13.9	27.7	15.9
	보증금없는 월세	3.5	2.2	2.9	0.5	1.3	0.6
	기타	7.3	3.6	5.7	3.0	3.0	3.0
소득 5분위	소득1분위	36.2	41.7	38.5	3.0	11.0	4.2
	소득2분위	29.5	36.9	32.6	9.7	28.8	12.6
	소득3분위	20.0	14.0	17.4	20.5	22.3	20.7
	소득4분위	10.7	5.9	8.6	29.0	22.4	28.0
	소득5분위	3.7	1.6	2.8	37.8	15.5	34.5
순자산		16,017	23,977	19,390	60,129	33,718	56,174
경상소득		3,628	2,965	3,347	9,360	5,945	8,849
처분가능소득		2,934	2,408	2,711	7,440	4,975	7,071

주: '전년도' 경상소득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2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세대별 1인가구의 소득5분위 분포

(단위: %, 만원)



주: 좌동
자료: 좌동

5. 중장년 1인가구의 정책 필요도

■ 50대부터 크게 악화되는 생활, '가족해체'와 '취업'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

○ 1인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잡힌 식사의 어려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경제적 불안' 순

- '균형잡힌 식사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하나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
- 40대 보다 50대에 전반적으로 생활의 어려움 증가, 특히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 '경제적 불안' 등에서 '어렵다'는 인식이 50대에 크게 증가, 본격적인 삶의 질 하락 예고

○ 가족해체 및 경제활동 여부가 만족도에 결정적, '가족해체-남성-실업·비경제활동-40대'가 중장년 1인가구 중 만족도 가장 취약

- 1인가구가 중장년 전체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 外에도 '인간관계'(9.7%p)와 '근로여건'(9.6%p)에서 차이가 큰 편
- 직접 가족 부양의 의무는 줄더라도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실업/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 가족해체나 연령에 상관없이 생활에 치명적
- 가족해체는 사회·심리적인 측면 외에도 非동거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 등으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

1인가구의 어려움

(단위: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균형잡힌 식사의 어려움	46.6	42.8	32.3	34.2	42.3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어려움	15.3	17.3	17.6	27.4	38.6
경제적으로 불안	6.7	8.7	12.4	26.7	28.7
가사 어려움	23.4	21.1	11.5	18.9	26.4
사람들로부터 고립/외로움	8.0	9.1	9.5	16.0	25.8
주거 환경 불안	9.6	10.6	7.3	12.2	12.4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선	7.8	7.1	13.0	11.5	14.2
범죄 위험	12.4	8.2	5.5	8.8	9.3

주: 각 문항별 5점 척도 중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응답 합
자료: 「가족실태조사」('20년) 여성가족부

중장년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 '만족한다'

(단위: %)

구 분				주관적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인간 관계	여가 활동	소득	소비 활동	근로 여건
중장년 전체				35.3	51.8	27.2	25.8	19.3	36.4
중장년 1인가구 전체				26.1	42.1	23.6	20.3	14.8	26.8
가족해체	남	실업 등	40대	5.4	17.2	5.4	9.3	0.0	-
가족해체	여	실업 등	50대	12.3	26.9	21.4	10.5	4.4	-
가족해체	여	실업 등	40대	13.8	22.9	8.2	0.0	0.0	-
미혼 등	남	실업 등	40대	15.9	20.5	18.0	3.5	5.0	-
미혼 등	남	실업 등	50대	16.0	24.6	13.0	8.4	8.5	-
가족해체	남	실업 등	50대	16.5	26.2	1.9	5.8	5.8	-
가족해체	남	취업	50대	17.5	34.4	18.1	17.6	15.6	13.0
가족해체	남	취업	40대	17.6	26.7	38.7	20.4	14.3	37.5
가족해체	여	취업	40대	20.3	49.9	12.2	26.2	19.7	26.9
미혼 등	여	실업 등	40대	20.7	44.8	21.1	8.9	5.7	-
가족해체	여	취업	50대	24.7	48.2	20.9	18.4	10.4	19.4
미혼 등	남	취업	40대	28.4	39.8	25.7	25.2	17.0	27.3
미혼 등	남	취업	50대	33.5	53.1	28.0	28.3	19.8	27.7
미혼 등	여	취업	50대	41.5	63.0	41.9	30.0	19.9	35.2
미혼 등	여	취업	40대	43.7	62.0	33.2	30.8	24.4	41.1
미혼 등	여	실업 등	50대	46.4	41.0	26.2	16.0	27.3	-

주1: (가족해체)이혼·사별·별거, (미혼 등)미혼·유배우자,(실업 등)실업·비경제활동
주2: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응답 합
자료: 「사회조사」('21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6.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제안

■ 기존 중장년 1인가구 정책의 한계

○ 정부의 1인가구 정책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청년·노인에 집중, 중장년 1인가구 정책(사업)의 경우 정책적 차별성이나 정책 목표(outcome) 모호

- 중장년은 생애주기상 청년과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공존하고 있음에도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정부 및 자자체 정책은 주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완화에 집중[4)]
- 서울시는 '1인가구 포털(씽글벙글 서울)'과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중이며 실제 사업은 자치구별로도 추진 중, 중장년 1인가구를 타겟으로 하는 사업은 극히 일부로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하고 정책 필요도 높은 저소득 또는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에게는 접근성 부족
  - 자치구 중장년 1인가구 사업 예: 중장년 1인가구 헬스케어(성동구), 중장년 1인가구 "같이, 가치"(문화 공유, 용산구),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중구), 중장년 1인가구 도자 공예 프로그램(광진구), 월간 밥상(마포구), 중장년 1인가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동대문구) 등 (2023. 8. 21 현재)

■ 중장년 1인가구 정책 방향

○ 중장년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소득·일자리 질의 급격한 악화, 노년기 진입 전 사회적·경제적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강화 절실

- 중장년 1인가구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해체 상황이 심각하여 심리적·인적 지지기반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사회·경제 자본이 부족해,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
- 노년기에는 사회·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크게 악화되고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기본적 안전망 체계의 강화 시급

○ 중장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현재 및 미래 생활여건의 개선 가능성 충분, 따라서 사후 문제해결식의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자립에 초점을 둔 적극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의 변경 필요

- 중장년은 노인에 비해 육체적 장애가 적고, 37.9%가 대졸 이상이며 82.6%가 취업 상태
- 하지만 동년배 非1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으며 일자리 질도 낮아 향후 사회적·경제적으로 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계
- 따라서 현재 중장년 1인가구의 정책 방향으로 자립 기반 유지 또는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령화 대응 비용 절감 등 중장기적 긍정적 효과 기대

○ 지속가능한 자립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년 1인가구의 정책 타겟 설정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중장년 1인가구 정책 타겟은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가능한 경우'**로, 현재의 경제·사회적 기반 강화를 통한 자립 지원이 정책 목적
- 단기(1년 이내)의 정책적 지원으로 자립이 가능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대상
  - 경제적 자립: 지속가능한 노동을 하면서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
  - 사회적 자립: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협력·소통·공감 등의 사회적 기술이 있는 상태[5)]
- 차상위층을 포함하여 기존 복지정책 대상자는 제외

---

4) 송민혜. (2021. 2).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방향. 50+리포트, 26.

■ 중장년 1인가구 정책 제안

○ **('1인가구 기본 안전망' 확대)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 확충이 우선, 1인가구에게 취약한 주거·돌봄 지원을 '1인가구 기본 안전망'으로 구축, 중장년 1인가구는 '예방적' 지원을 지향**

- 영국, 스웨덴과 같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취약한 1인가구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6],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1인가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노력 필요
- 중장년 1인가구부터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자금차입' 대상 급격히 감소, 경제적 애로점 가중
- 특히 '주거비'는 세대에 상관없이 부담이 가장 큰 지출, 월세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은 중장년 1인가구에게도 확대 필요
  - 1인가구 주거 지원 정책: 청년(월세지원, 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노인(고령자복지주택, 노인공공임대주택 등)
- 중장년은 청년(출퇴근 등 교통편리 要)과 노인(병의원 근접 要)에 비해 거주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저렴한 입지에서 중장년 전용 사회주택 확충도 고려[7]
- 정부의 '일상돌봄 서비스'는 위기관리 대처와 고독사 예방에 집중[8], 예방적으로 건강유지나 개선과는 거리, 중장년 1인가구의 자립 지원 차원에서 정기적인 육체적·심리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자립 역량의 측정)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일상적·경제적·사회적 역량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

- 사회적 관계와 역할이 제한적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대부분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 어려워
- 일반적인 중장년 정책과 차별적이면서, 1인가구의 상황에 맞는 실효성있는 맞춤 정책을 위해 사전에 역량 평가 실시
- 일상생활역량·경제생활역량·사회생활역량 3가지 차원으로 평가[9]
  ① 일상생활역량: 기본적인 위생, 가사 및 집안관리 능력, 중장년기 발달단계 특성상 고려해야 할 건강 관리 수준 등
  ② 경제생활역량: 소비와 지출의 우선순위 및 적절한 지출규모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 희망하는 일자리에 필요한 지식경험 수준 등
  ③ 사회생활역량: 조직에서의 적응 역량, 의사소통, 역할 분담 및 협력, 의사조정, 갈등대처 등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등

○ **(지역별·대상별 맞춤 정책 설계) 청년·노인과 달리 정책 다양성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 개인 역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

- 대부분 지자체 1인가구 사업들이 소규모로 대동소이하고 인지도도 낮은 상황, 중장년 1인가구의 필요한 역량 수준에 따라 대상과 목표(outcome) 명확화, 이에 따라 정책 다양성도 확대해야
- 1인가구의 특성이 다양한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우, 동시에 복수의 다양한 정책 추진하되 지역의 중장년 1인가구의 특성에 기반하여 대상과 목표를 명확화
- 중장년 중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고령화 지역의 경우, 지역내 1인가구의 밀도가 낮아 1인가구만 대상으로 독립된 사업 추진에 다소 무리, '자립'이 필요한 범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되 1인가구에 대한 목표 관리는 별도로 실시

---

5)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은 저자에 의한 정의임
6)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겨울호, 11, 16~26.
7) 송인주. (2021. 3). 서울시 50+ 1인가구와 주거 취약 문제와 대안. 50+리포트, 27.
8) 보건복지부. (2023. 7. 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 호주 Men's Shed Program[10)]

- 중장년층 취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건강, 사회적 관계, 기술습득 등의 영역에서의 전반적 웰빙 향상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기반학습모델(community learning initiatives)
- 지역 여건 및 참여자의 관심사에 따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유형으로 운영
  - '노동형'은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동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공방 형태로, 건축 및 복구, 수리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중점
  - '치료형'과 '공동체형'은 구성원 간 보건 지식 공유 및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운영
  - '교육형' 공방은 기술습득과 자격증 취득 지원에 중점
  - '레크리에이션형'은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지원
-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노동형 공방은 목공기술을 기본으로, 개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치료형과 공동체형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소프트스킬'을 서로 배우고, 대화의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연스레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친목 형태의 만남 공간을 제공이 목적
- 작업공간인 'Shed'에서 철공, 목공, 원예 등 공동작업 수행, 각 지역의 비영리/비상업 기관에서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

○ (호혜성 훈련에 기반한 사회 자본 확충) 사회적 고립 완화만이 아니라 네트워크·호혜성·상호신뢰 등을 고려한 '사회자본' 확충 지향, 공익활동과 자조모임 등 적극 활용

- 공동체내 지속가능한 연대에 기반하여,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중장년이 보유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호혜성 훈련 차원에서 자원봉사 등 공익적 활동의 병행 고려
- 가족해체와 실업상황으로 은둔형이 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사업 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어 전문 비영리기관을 매개로 한 자조모임 형태의 사업도 적극 고려

※ 영국의 서클 모델[11)]

- 영국 맨체스터의 비영리단체 'Participle' 주도로 시행된 사회서비스 모델로, 50세 이상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서클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각 지역 서클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관계)에 기초하여 공공 영역에서 제공받기 어려운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지원
- 기존 복지서비스가 대상자를 수혜자로 한정했다면, 서클모델은 대상자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도움을 주는 주체적 존재로 보는 것이 특징

9) 이상아 외(2022)의 내용을 참조함

10) 권진희, 이영민, 이지혜, 채재은, 김정현, & 양현경. (2018). 50+ 교육 체계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1) 권현진. (2021).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 이슈. 청주복지재단

○ **(멘토링+일경험 지원) 일자리 지원은 직무 경험뿐만 아니라 조직 적응 및 소통 훈련을 병행한 '멘토링+일경험'으로 접근**

- 사회 자본은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가능한 근로활동을 위해서도 필수 요건
- 사회 자본의 부족은 조직에서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지장, 결국 경제적 자립에도 부정적
- 따라서 장기간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이었던 경우에는 일자리 지원은 취업을 위한 일경험 기회와 일터에서 소통·협력기술을 높일 수 있는 경험(멘토링)을 동시에 추진 필요

○ **(중장년 1인가구 니트족(NEET) 지원체계 구축) 외부와 단절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비활동 상태의 중장년 1인가구의 정기적 파악 및 접촉,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 1인가구의 장기화는 점진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변화, 사회경제적 비활동 상태로 고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노인 취약계층화 위험
- 지자체별 중장년 1인가구 현황에 대한 정기적 체크, 특히 '중장년 1인가구 NEET' 집단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2년 이상 취업활동이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4050대 1인가구

[참고문헌]

강은나, &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 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4), 47-56.

관계부처합동. (2023. 5. 17.).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권진희, 이영민, 이지혜, 채재은, 김정현, & 양현경. (2018). 50+ 교육 체계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권현진. (2021).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 이슈. 청주복지재단

보건복지부. (2023. 7. 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송민혜. (2021. 2).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방향. 50+리포트, 26.

송인주. (2021. 3). 서울시 50+ 1인가구와 주거 취약 문제와 대안. 50+리포트, 27.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겨울호, 11, 16~26.

이상아, 박지영, 이석미, 고은새, & 이원지. (2022).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자활사업 모델 개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